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주식과 채권은 반대' 상식 깨진 이유..인플레와 우크라이나
- ◇ (초점)-韓 인플레 서비스부문 확산 조짐.."매파 금통위에 힘 실릴 듯"
- ◇ (달러/원 월간 전망)-1200 원대 굳히고 고점 찾기.."상단 열려" VS "경계감 작용"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이사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국민군이라는 민병대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세르히 누즈네펬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197.0	0.7%	-0.7%	-8.6%	유로	1.1448	2.7%	0.7%	-6.9%
100엔 대비	1,040.1	0.9%	-0.7%	+1.8%	엔	115.22	0.0%	-0.1%	-10.3%
유로 대비	1,371.9	-1.7%	-1.5%	-1.9%	위안	6.3610	0.0%	-0.1%	+2.7%
위안 대비	188.40	0.9%	-0.7%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5,089.74	1.0%	-3.4%	+18.7%
코스피	2,750.26	3.3%	-7.6%	+3.6%	나스닥	14,098.01	2.4%	-9.9%	+21.4%
코스닥	902.87	3.4%	-12.7%	+6.8%	S&P500	4,500.53	1.5%	-5.6%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615.27	2.9%	-2.3%	-4.9%
국고채 3Y	2.194%	0.5bp	39.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418%	2.2bp	40.7bp	+67.6bp	미국채 2Y	1.310%	14.0bp	58.0bp	+61.0bp
국고채 10Y	2.619%	3.3bp	36.9bp	+53.7bp	미국채 10Y	1.910%	13.0bp	40.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1.92	5.3%	21.8%	+55.8%	한국 5Y	25.5bp	0.8bp	3.4bp	-0.7bp
금(현물)	1,807.88	0.9%	-1.1%	-3.6%	일본 5Y	17.6bp	0.0bp	-0.1bp	+2.1bp
TR상품지수	3,234.86	-2.4%	-3.1%	+24.6%	중국 5Y	50.0bp	0.0bp	8.8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7일(월)>

- 한은, 1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부총리 · 2차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 금감원, 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12:00)

<8일(화)>

-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한은, 「최근 공급차질 및 감염병 상황이 제조업 재고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 (12:00)

<9일(수)>

- 산업부, 국제유가 동향 및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 계획 점검(06:00)
- 한은,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12:00)
- KDI, 경제동향(2월호)(12:00)

<10일(목)>

- 기재부, 부총리 ·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한은,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08:00)
- 한은,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금융위, 1월중 가계대출 동향(12:00)
- KDI, 북한경제리뷰(1월호)(12:00)

<11일(금)>

- 관세청, 2월 1-10일 수출입
- 기재부, 부총리, 거시경제금융회(08:00)

<13일(일)>

- 한은,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BOK 이슈노트)」 (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7일(월)>

- 일본 1월 외환보유고 (08:50)
-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중국 1월 외환보유고
- 유로존 2월 섀프티지수 (18:30)
- 미국 1월 고용추이 (자정)

<8일(화)>

- 미국 12월 소비자신용 (05:00)
- 일본 12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2월 경상수지 (08:50)
- 미국 1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9일(수)>

- 뉴욕 연방은행, 2021년 4분기 가계부채 · 신용 보고서 발행 (01: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 (자정)

<1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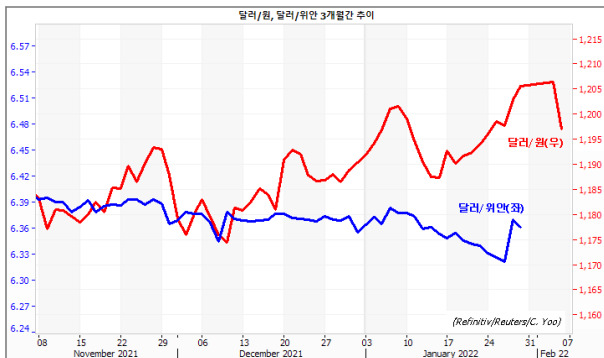
- 일본 1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1월 CPI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11일(금)>

- 미국 1월 연방예산 (04:00)
- 일본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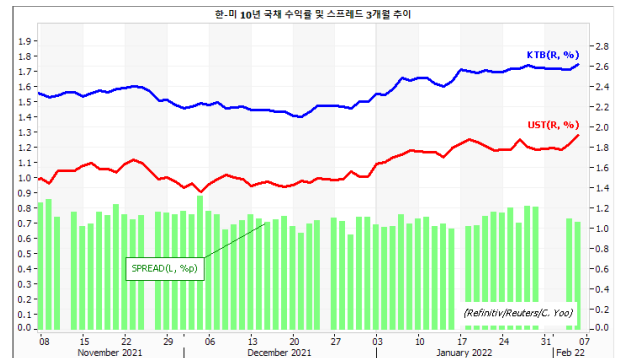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가와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한 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88-1208 원이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채권금리가 상승 변동성을 대폭 키우는 한편 증시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각 자산별 변동성이 모두 커진 채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된 가운데 원화는 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
- 글로벌 달러가 다른 국가들의 긴축 가속 행보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달러의 추가 약세 여지는 있다.
- 하지만, 유가의 배럴당 100 달러 돌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환 수급 압박, 그리고 증시 조정 가능성은 지속적인 원화 약세 압박 요인이다.
- 물론 최근 국내 조선사의 대규모 계약 수주와 관련한 수급 변수를 고려하면 역내 뻣뻣한 수급 상황에 다소 여유는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작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통해 전반적인 외환 수급 여건이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날에 나오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결과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역내 수급 반응 등에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원화 거래가 전망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2%대까지 올라섰다. 기준금리 2%를 감안하더라도 웬만하면 밀리기 어려워 보이는데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돌아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상황인데 국내 물가 지표마저 악화되고 있어 매도 재료에 민감하다.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벌써 세 차례나 인상한 만큼 최근 움직임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쉽게 금리 고점이 잡히지 않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이번 주 여야의 추경안 협상과 관련한 뉴스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클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과연 여야가 어떤 합의를 할지 관건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심성 예산 집행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 투자자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 물론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가 확인된 것은 금리 고점 인식을 강화해줄 재료다. 한은은 4일 장마감후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지표물과 국채선물 바스켓 채권을 포함시키면서 시장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이에 따라 오는 11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총출동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 대외적으로는 오는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1월 CPI는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7.3% 올라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PI 발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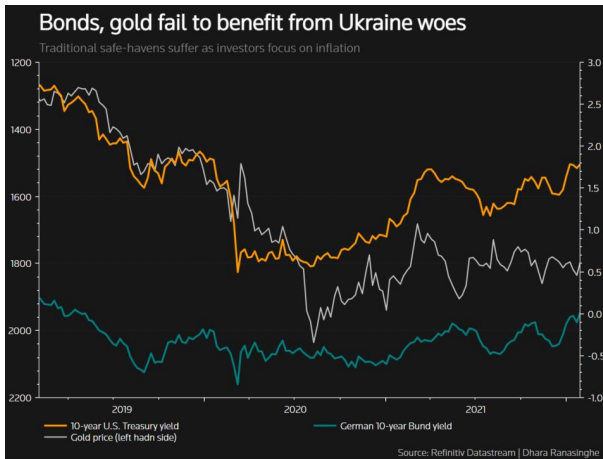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초점)-'주식과 채권은 반대' 상식 깨진 이유..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런던, 2월 03일 (로이터) -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급등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심을 끈다.

러시아 병력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집결에 대한 불안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지난달 미국 주식시장의 5%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주요국 국채와 금 등 정치적 불안이나 전쟁 위기시 보통 켈리를 보이는 자산들은 별다른 반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안전자산 중 으뜸인 미국과 독일 국채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수익률이 지난 1월 각각 30bp와 20bp 상승하는 등 2021년 초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기록했고, 금은 2% 하락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존 브릭스 넷웨스트마켓츠 글로벌 데스크 전략 헤드는 2000년 이후 전체의 약 14%인 35개월간 동시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자들은 위기시 수익 보호를 위해 주식과 채권의 역상관관계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브릭스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출 때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전의 상관관계 중 일부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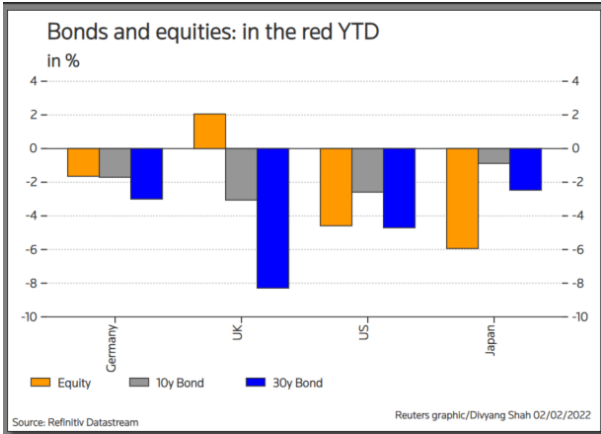
미사일 발사나 걸프만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최근 리스크 이벤트들이 투자 행위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무력 위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도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십 년간 억제돼 있던 인플레이션이 많은 국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러시아와의 갈등은 유가와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울 것이다.

BNY 멜론웰스매니지먼트의 존 플라하이브 채권 투자 헤드는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고객들이 "다소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면 고등급 채권에 안전자산 매수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1월 말이 되어 정신을 차려 보니 포트폴리오에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모든 것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네랄리인베스트먼트의 빈센트 차이노 리서치 헤드는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 비율인 60대 40을 취한 포트폴리오가 12월 2.34%의 수익을 낸 뒤 1월에는 3.77%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군사적 위협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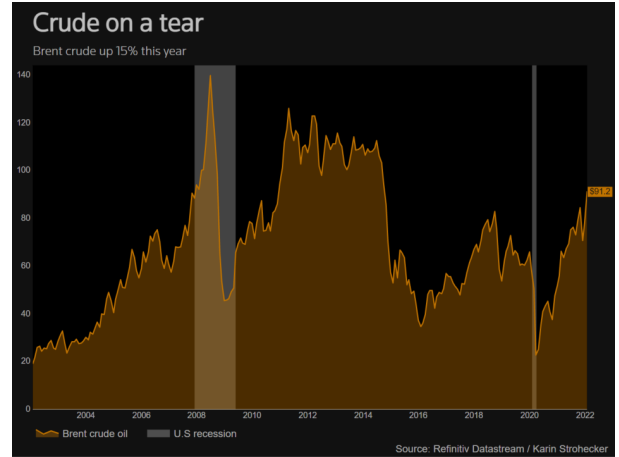
연방준비제도는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영란은행은 3일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물가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

채권 헤지가 소용이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일까?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들이 투자 등급 회사 채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또 지정학적 긴장이 높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달러와 기타 미국 자산으로 직행하는 방법도 있다.

아문디에셋매니지먼트는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되 상황이 실제로 악화될 경우 리스크를 줄일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시장이 성장 전망과 통화정책 반응을 재평가하게 된다면 채권은 매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특히 시장을 취약하게 만든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가 현 수준에서 약 30%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200% 폭등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자사의 올해 유로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는 3%에서 4%로 높아지겠지만, GDP 성장률 전망이 3.6%에서 50bp 하향 조정돼 ECB의 금리 인상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준 이사를 역임한 랜디 크로즈너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시장에 있어 지정학적 시험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냉전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연루된 본격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와일드카드"라고 말했다.

(초점)-韓 인플레 서비스부문 확산 조짐.. "매파 금통 위에 힘 실릴 듯"

서울, 2월 0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측 요인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채권시장에선 이같은 물가 지표가 현재 매파적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비스 물가 '꿈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효과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3.3% 상승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는 11월(3.8%), 12월(3.7%)에 이어 지난달까지 3달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공급 측 요인이 1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가격이 16.4% 올라 기여도 0.66%p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1월 석유류 가격 오름폭은 한 달 전(24.6% 상승)보다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한 데 힘입어 농축수산물 가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낸 부분은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세다. 외식비는 1월에 5.5% 상승해 소비자물가 헤드라인을 밀어 올리는 데 0.69%p 기여했다. 이는 석유류보다 더 크다.

특히 1월 근원물가지수가 2.6% 올라 2015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상품 가격에 국한됐던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동반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에도 민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통위 매파 스탠스에 힘 실릴 듯"

채권시장에선 1월 물가 지표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

적이다. 3일 공개된 1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들쭉이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된 위원들의 물가 관련 우려가 실제 지표에서 똑같이 확인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급 측 상승 압력뿐 아니라 수요 측 물가 압력이 함께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겠지만, 당초 1분기로 예상됐던 정점 '피크 아웃' 시점이 한 분기 정도 지연될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며 "통화 당국의 매파적 스탠스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현재 흐름만 보면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가도 물가 상승세가 잘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듯한 지표는 금통위원들의 경계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올린 만큼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의 톤은 당분간 매파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달러/원 월간 전망)-1200 원대 굳히고 고점 찾기.. 상단 열려" VS "경계감 작용"

서울, 2월 3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작년부터 꾸준히 레벨을 높여와 어느덧 1200 원대까지 버섯이 열린 달러/원 환율은 이달 새로운 고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 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182-1219 원이다.

지난달 달러/원 환율은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본색을 확인하면서 3 개월째 상승해 1200 원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달 달러/원 예상 범위 하단의 경우 1180 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좁게 모아진 반면, 상단은 1205 원부터 최고 1245 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게 제시됐다.

미국 통화정책 경계감에 기반한 달러 강세 기조, 2 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의 상방 재료 속에 환율이 고점을 어디까지 높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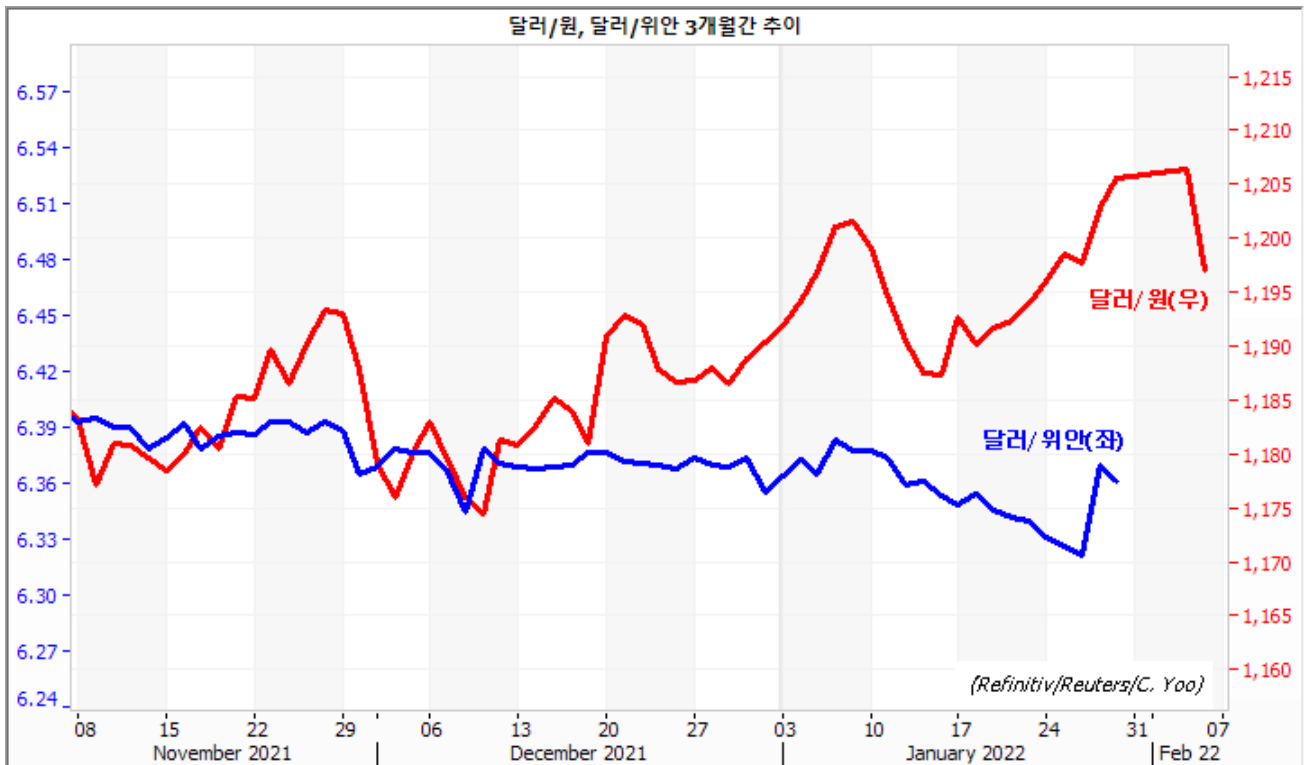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긴축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달러 강세의 추가 진행 강도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1200 원대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환율이 이미 이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상단이 열려 있다는 진단과 여전히 네고 매물 출회 및 당국 개입 경계감이 작용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의견이 섞여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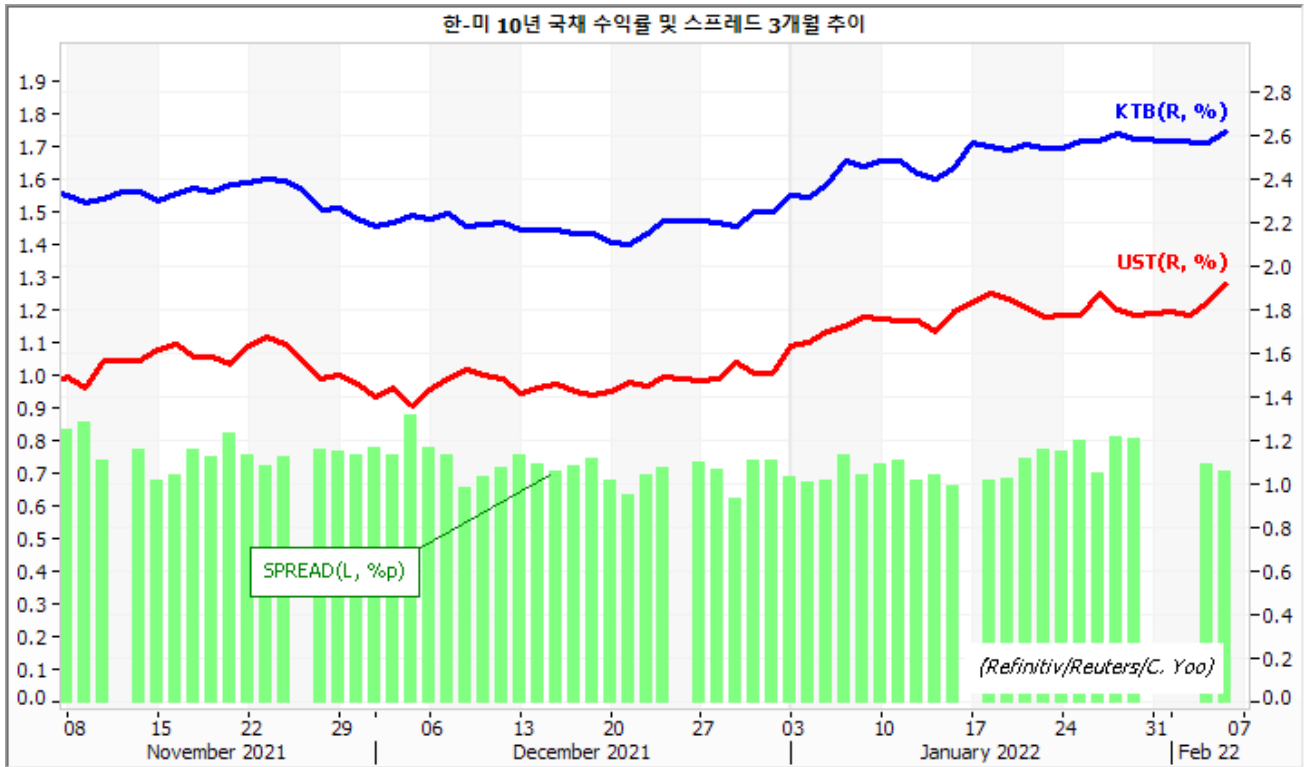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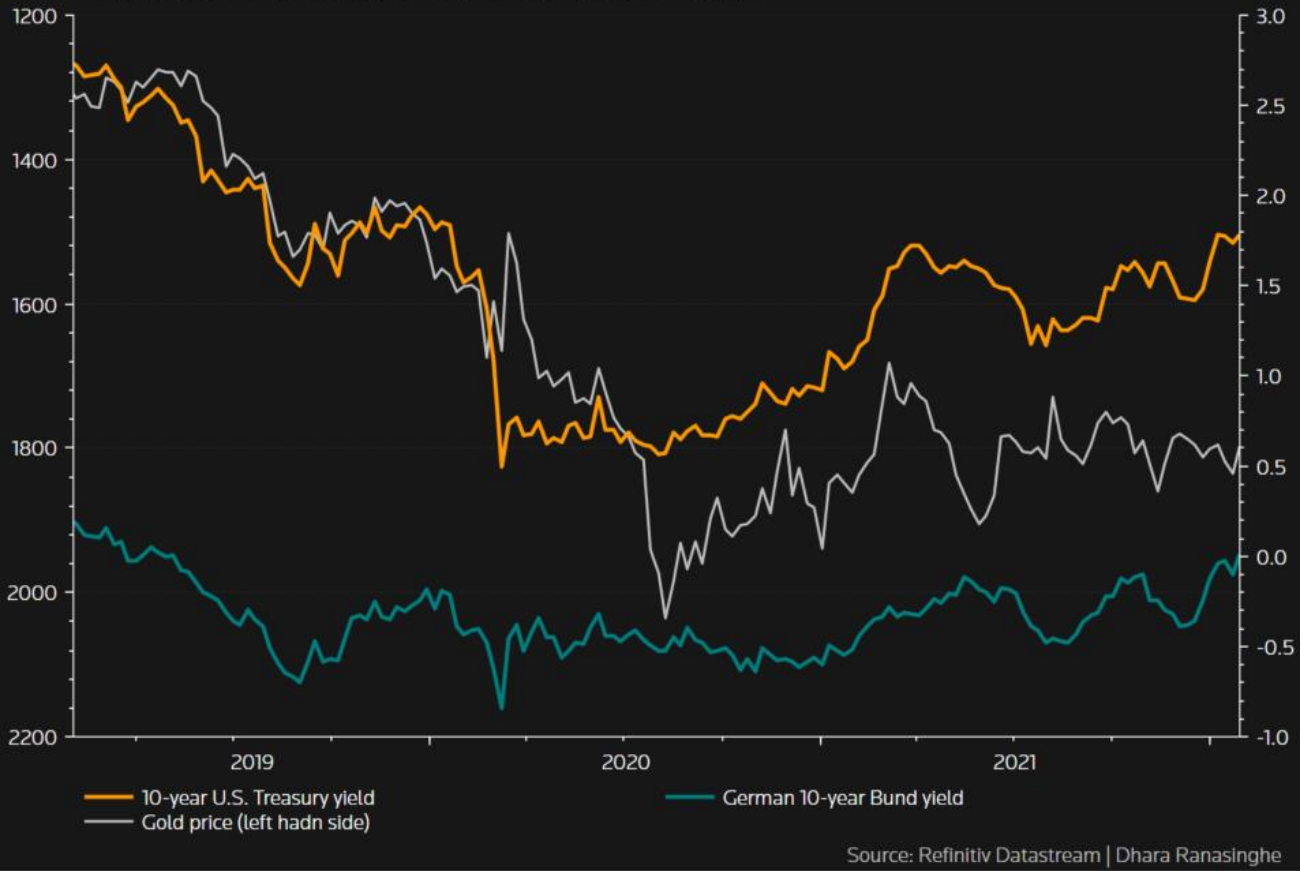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onds, gold fail to benefit from Ukraine w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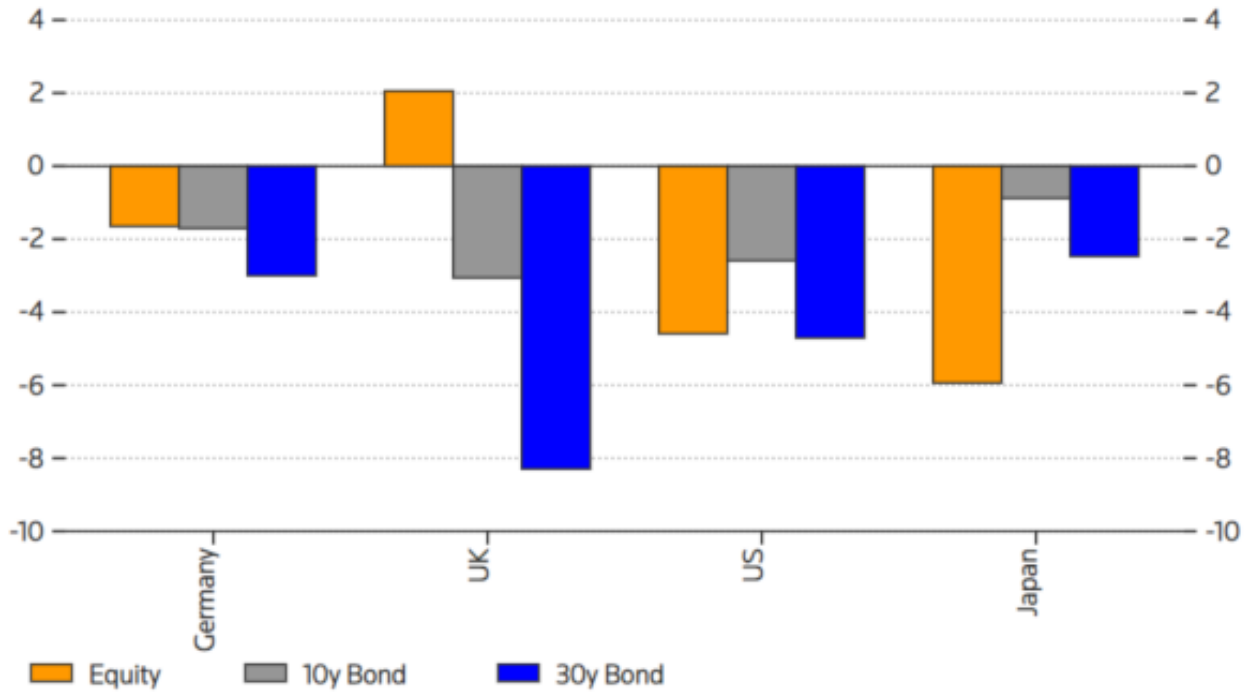
Traditional safe-havens suffer as investors focus on inflati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onds and equities: in the red YTD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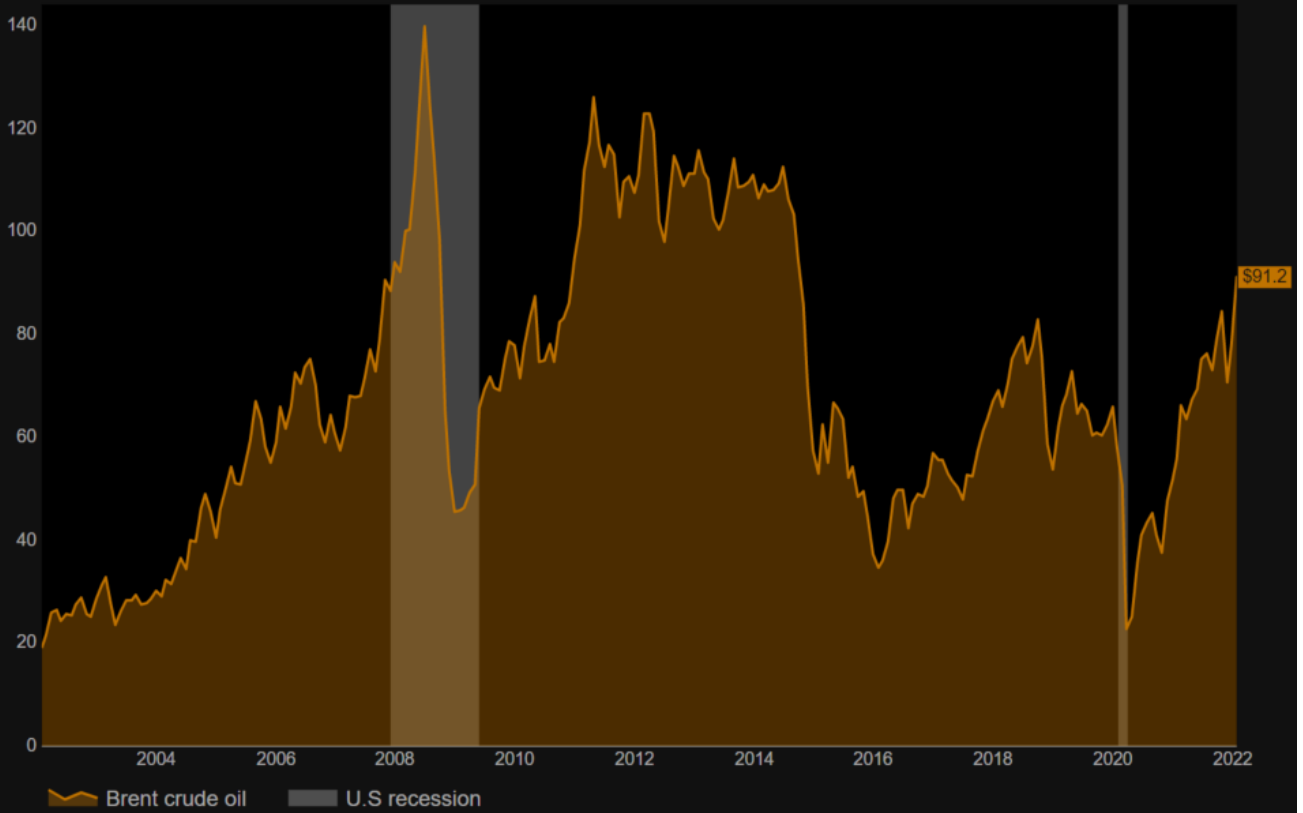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euters graphic/Divyang Shah 02/02/2022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rude on a tear

Brent crude up 15% this year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Karin Strohecker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